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기억화의 모색*

- 한국교회 연합의 기억을 중심으로

전순영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전문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II. 한국교회와 공산주의

1.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교회의 대응
2. 1980년대 이전 한국교회의 반공주의

III.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합의 기억

1. 진보의 통일운동과 보수의 북한선교
2. 연합의 동력이 된 북한동기운동
3. 외국인과 재외한인의 대북지원 활동
4. 연합 기억 소환의 함의

IV. 사상적 화해와 재기억화의 신학

1. 사상적 화해의 모색
2. 집단기억의 재기억화
3. 재기억화의 신학적 근거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11>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2020) 제4장과 결론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Rememorization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the Memories of United Korean Churches

Researcher. Jeon, Sun Young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d the re-memory or memory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church's collective memory as a methodology to promot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communism and alleviate hostility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To this end, the difference of response between the world church and the Korean church was analyzed. This paper also reflected the problems of anti-communism in the Korean church and considered the significance of the unification campaign of the liberals as well as the evangelical unification campaign of the conservatives. The two camps opened the door to unity with a drive to help North Korea in the 1990s, and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have served as a bridge for unity. The church's unity can be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the South Korean church should overcome the dichotomy between good and evil views on North Korea and communism, making efforts to overcome the conflict over differences in views of North Korea by summoning and sharing memories of the united churches. Re-memorization, which aims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can serve as a practical basis for the Korean Church to contribute to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Rememorization, Christian Anti-communism, Campaign for Helping North Koreans, Unity, Ideological Conflict,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 이후 7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 평화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매년 한국인의 통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의 열망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¹⁾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은 90년대 최악의 식량난을 극복한 이래 대북제재 속에서도 상당 수준의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비핵화 문제로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단기간에 타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이 현상 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견지하는 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3대째 세습되고 있는 지배엘리트 계층의 충성으로 유지되는 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의 타계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위임통치의 형태로 존속될 가능성마저 예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당면목표로 삼기보다는 적대성이 약화된 상태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면서, 그 과정의 열매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방법론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궁극적 평화에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폭력이며, 한쪽의 궤멸을 의미하는 일방적 흡수통일이 초래할 무질서와 혼란은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2021년 통일연구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국민일보의 설문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응답자가 과반인 56.5%를 차지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U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21). 2021년 국민일보 20~30대(MZ)세대 설문조사에서는 '통일 반대'(54%)가 '찬성'(48%)을 앞질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조사에서는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젊은 층이 52%(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8.10.2)에 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통일정책 성과에 따라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은 비교적 유동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처럼 분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사회 어느 집단보다도 통일을 열망하고 대북지원에 앞장서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공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북한을 악마화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의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대북지원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통일관과 대북관의 차이로 인하여 극단적 주장들만 난무할 뿐 중도적 입장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념갈등으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과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사 58:12)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은 한국교회의 내부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이다.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선행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 진영과 교파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북한과 공산주의, 그리고 보수와 진보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적대의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화해와 연합의 기억을 호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대응과 그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반공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3장에서는 진보진영의 통일운동과 보수진영의 복음통일론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양 진영은 90년대 북한돕기운동으로 연합의 물꼬를 텃고, 외국인과 재외한인의 대북지원활동이 연합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교회 연합의 역사적 기억은 한국교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기억으로 소환될 수 있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의 사상적 화해와 집단기억이 재기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교회의 재기억

화를 위한 제안과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II. 한국교회와 공산주의

1.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교회의 대응

공산주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근원적 부정은 한국전쟁 이후에 경험적으로 확립되고 강화된 것으로,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에 대한 자기성찰적 응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르크스는 당대의 초역사적, 초월적 기독교 신앙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지상의 구체적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아편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가 민중을 초월로 인도하면 결과적으로 지배계급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종교를 거부하며 민중의 힘과 계급투쟁에 의한 과격한 사회혁명의 길을 제시했고, 그로 말미암아 20세기 전 세계는 거대한 공산주의의 실험장이 되어 엄청난 시련과 희생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잉태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빈부격차와 계층갈등, 각종 사회적 모순에 대해, 많은 서구와 제3세계 신학자들은 마르크스가 던진 도전적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세상을 위한 교회’ 개념을 제시한 칼 바르트(Karl Barth)는 서구 자본주의 문명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교회가 복음을 새롭게 증언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²⁾ 다만 바르트는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에 의한 혁명은 변질되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초월자에 의한 궁극적 혁명을 역설했다.

2) Karl Barth, “동과 서 사이에 있는 교회,” Richard Grunow 엮음, 이진건 외 옮김, 『칼 바르트의 신학묵상』(대한기독교서회, 2009), 878.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마르크스주의의 골격을 뽑아서 기독교와 결합시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정치윤리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융합을 시도하기도 했다.³⁾ 여기서 더 나아가 기독교 공산주의자들(Christian communists)과 같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이상적인 사회체제로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자발적 재산공유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재세례파 등의 급진적 개신교파에서 재산공유를 통해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1966년 제네바에서 열린 ‘교회와 사회를 위한 세계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와의 접촉을 위한 공식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적 사회 이념 옹호자 간의 직접 대화는 가능하다. 특히 세계교회협의회가 주도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추구할 것을 선언한다. 이로써 인류 평화 증진을 위해 이념과 상관없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1980년대 이전 한국교회의 반공주의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한국교회는 1970년대까지 철저한 반공 이념을 견지해왔다. 한국교회는 이승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

3) Reinhold Niebuhr, “Christian Politics and Communist Religion,” in *Christianity and Social Revolution*, ed. John Lewis et al. (London: Victor Gollancz, 1935), 461-472. 훗날 니버는 1940년에 사회당을 탈당한 후 점차 반공주의로 돌아서서,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 민중에게 권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가 되었다.

4) WCC, *World Conference on Church and Society, Official Report* (Geneva: Imprimerie la Concordance, 1968), 206.

고, 이승만은 한국교회에 특혜를 주면서 공동운명으로 묶였다. 이승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진통일을 주장했고, 한국교회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힘을 보탰다. WCC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한국전쟁 개전 초기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편에서 유엔군 파병을 지지했다가, 재앙적 규모의 인명피해에 경악한 나머지 휴전 촉구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승만과 함께 휴전을 끝까지 반대했다. 한국교회의 투철한 반공주의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참전을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이해했던 한국교회는 박정희 정부의 파병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베트남전쟁 개입을 반대한 세계교회의 입장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한국교회는 이처럼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미군의 베트남 철수를 끝까지 반대했다. 비록 현지 구호활동이나 한인교회 설립 등 교회 나름의 합목적적 활동을 펼치기는 했으나, 군사독재정권의 냉전 이데올로기 명분에 가장 충성했던 집단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다.

한국교회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한국교회 주류 신학의 근본주의적 성향 문제이다. 공산주의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마, 사탄, 뱀의 현신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미국의 보수교회 주류가 반전시위를 비판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NCC 회원인 감리교, 성공회,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등이 반전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반공주의로 결집하여 세계교회의 반전·평화운동 흐름에 저항했다. 한국전쟁의 기억을 공산주의 체험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라우마 체험이 인식 왜곡을 불러온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남긴 공포와 고통의 기억이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되지 못한 채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전쟁 피해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베트남전쟁을 십자군전쟁으로 의미부여한 과정은, 악행을 당한 기억이 피해자들을 부추겨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경고⁵⁾를 떠올리게 한다.

III.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합의 기억

1. 진보의 통일운동과 보수의 북한선교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일률적으로 반공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교회는 민주화와 통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회집단 중 하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도 많고,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사역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관여해왔으며, 대북 NGO 상당수가 기독교 계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교회 안의 이념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통일을 지향하는 반통일세력이자, 평화를 지향하는 반평화주의자처럼 보인다. 대북관에 따른 한국교회의 분열과 이념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국교회는 1930년대 신학논쟁 이후 1953년 4월 ‘예수교장로회’(예장)와 ‘기독교장로회’(기장)로 분열되었다. 두 교단의 분열은 성서해석 방법에 따른 대립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양 진영이 반공·반북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남북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대립관계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그 신학적 배경에 기초하여 보수는 ‘북한선교’, 진보는 ‘기독교

5)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서울: IVP, 2016), 38.

통일운동'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운동에서 처음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분단이 가져온 모든 질고의 원인을 북한 공산주의 정권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인식하고, 회개와 화해를 통일신학의 대전제로 제시했다. 북한과의 화해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분단 갈등 속에서 형제요 동포인 북한을 사랑하지 못한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죄책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교회 통일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는 KNCC의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88선언)은 한반도 분단이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 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최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묘사하는 데 그쳤다.⁶⁾ 전쟁 책임의 진상규명보다 분단체제라는 적폐의 청산에 방점을 둔 것이다. 남북 양측에서 민감한 사안인 전쟁기억에 관한 논의는 "속죄양의 고난"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묻혀버렸다. 전쟁을 수행한 양 당사자를 냉전체제의 희생자라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기억에 대한 요구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정죄 없이 화해부터 시도했다는 점에서, 전쟁기억의 치유에 관한 한 88선언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이 선언은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북한교회 실체를 인정했으며 북한이 주장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보수 개신교단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를 계기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긍정

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1980년대~200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2000,11), 103.

적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 교회들과의 연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 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아울러 이 선언으로 촉발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대화는 ‘통일운동’과 ‘북한선교’의 연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통일운동과 북한선교에 대한 복음주의권의 입장은 1996년 1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CCK) 산하 통일정책위원회에서 당시 49개 가맹교단과 13개 단체를 대표하여 채택한 ‘한국교회 통일정책선언문’(‘96선언’)으로 공표되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한 통일의 필요를 강조한 96선언은 보수교회의 원리적인 통일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복음주의권의 평화통일신학 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 이렇게 상호영향 속에서 전진하게 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교류행보는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연합 대북지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연합의 동력이 된 북한돕기운동

1993년 4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이 정식 출범하면서, 그동안 기독교 진보진영이 주축이 되었던 통일운동이 보수와의 대연합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교단과 종파, 그리고 신학적 이념을 떠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단일체”⁷⁾를 지향하는 남북나눔운동은 ‘제3의 통일운동이자 기독교 사회운동’이었으며, 로잔 언약에 기반한 보수진영의 복음주의적 사회참여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 남북나눔운동 출범 당시 진보진영 권호경 목사와 김영주 목사는 도시산 업선교회 출신이었으나 민중신학을 성찰적으로 받아들인 열린 진보였고, 보수진영 홍정길 목사와 이만열 교수, 이문식 목사는 로잔언약을 수용한 열린 복음주의자들이었다.⁸⁾ 이 연합운동의 태동과 전개 과정에서 양 진

7)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352.

영의 중개자들이 했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1992년 1월 진보진영의 권호경 목사가 조그런 고기준 서기장과 함께 김일성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 통일에서 교회가 했던 역할을 거론하며 남북나눔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다. 이후 그가 남북 기독교 교류를 추진하며 대북지원을 위해 나서줄 교회를 찾았으나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가 초대 사무총장직을 수락하면서, 당시 기획실장을 맡았던 이문식의 표현에 의하면 “3·1운동처럼 보수와 진보가 함께 참여하는 전 교회적, 전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⁹⁾되었다. 보수진영의 홍정길 목사에 대한 신뢰가 보수 개신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남북나눔운동이 초창기부터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실질적 이념과 사상을 정립해온 것도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전망을 구체화시키는 데 기여했다.¹⁰⁾

남북나눔운동을 필두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기 위한 보수와 진보의 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강변교회 원로이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회장인 김명혁 목사는 88선언에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나중에 포용적 입장으로 선화하면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때 ‘범종교적인 대북지원’에 앞장서는 통합적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덕수교회 원로인 손인웅 목사는 1998년 14개 교단이 참여하는

8) 임완철, “199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문화적 기원 연구—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45-46.

9) 백찬홍, “[인터뷰] 남북나눔운동 이문식 공동대표, ‘화해에서 평화로’, 「남북경협뉴스」 (2019.9.30)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70> (검색일 2021.7.2.)

10) 임완철, “199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문화적 기원 연구—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41. 초대 연구원장은 이만열 교수였다. 이만열은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고신측 장로이면서 KNCC를 자주 방문하여 진보진영 운동에 관여하였다. 홍정길과 이문식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도 이만열이었다. 남북나눔의 연구위원회는 2006년 독립하였고 현재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의 모체가 되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를 통해 NCCK와 한기총의 통합을 추진했다. 한동안 교회 연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2007년 기구통합은 결국 무효화되고 말았다. 예정총합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 목사도 보수 교단들과 NCCK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1986년 NCCK 회장을 맡아서 당시 한기총 회장이던 최훈 목사를 자주 만나고 협력하여 북한에 쌀을 보내는 등 연합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2006년에는 한기총 회장에 취임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진보와 보수 연합기관의 수장을 지내는 흔치 않은 경력을 쌓았다. 박 목사의 노력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수와 진보가 함께 부활절연합 예배를 드렸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경동교회 원로인 박종화 목사도 보수와 진보의 연합을 표명하며 2010년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평통연대)를 설립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가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를 결집시킨 것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기독교적 형제사랑이 어떤 실천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남북나눔운동이 한기총이 주도한 북한교회재건운동¹¹⁾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서, 보수진영의 남북통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임박한 북한 붕괴론’에 근거했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진보진영이 88선언을 통해 선포한 분단의 죄책 고백은 보수진영의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남북나눔운동의 사례는 각 진영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연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평화통일을 위한 ‘용서와

11) 한기총은 1995년 8월 14일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결성하고, 북한교회 재건 3원칙으로 1) 연합, 2) 단일 교단, 3) 북한 사람에게 의해 운영되는 북한교회의 원칙을 수립했다. 2,069개 교회 재건을 목표로 각 교단의 교세 비율로 나누어 배당했던 자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에서 펴낸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서울: 진리와자유, 1995) 참조.

화해'에서도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연합운동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 운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3. 외국인과 재외한인의 대북지원 활동

외국인들과 재외한인들은 비교적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구속받지 않고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인 선교사 데이비드 로스(David Ross, 한국명 오대원) 목사¹²⁾와 예수원의 벤 토레이(Ben Torrey) 신부는 진영논리에 구애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토레이 신부는 예수원 창립자 대천덕(R. A. Torrey) 신부의 아들로, 부친의 뒤를 이어 '삼수령 네 번째 강 프로젝트'(The Fourth River Project)를 통한 통일교육과 인재양성에 주력하면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한국 선교사 후손으로, 직접적인 통일운동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린튼(Linton) 가의 현신도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895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유진 벨(Eugene Bell; 1868~1925, 한국명 배유지) 선교사가 부인 로티(Lottie Bell, 1867~1901)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이래, 4대째 6명의 자녀가 한국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유진 벨의 손자인 휴 린튼(Hugh Linton, 1926~1984, 한국명 인휴)은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건립했고, 그의 사후에는 부인 로이스 린

12) 한국명 '오대원'으로 더 널리 알려진 로스 목사는 1961년 한국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와서 1973년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다. 그후 세계선교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1980년 국제선교단체인 YWAM과 연합하여 'YWAM KOREA'로 사역했다. 1986년에 시애틀에 '안디옥선교훈련원'(YWAM-AIIM, 일명 '성령의 샘')을 설립했고, 1998년 '북한연구학교'를 시작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2005),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1999),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2013)(이상 예수전도단 출판) 등을 저술했다.

튼(한국명 인애자)이 35년간 결핵퇴치를 위해 노력하다 1994년 은퇴했다. 후 린튼의 둘째 아들 스티브 린튼(Stephen Linton)은 1979년 처음으로 북한 평양지역을 방문한 후, 1995년 유진벨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다체내 성결핵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셋째 제임스 린튼(James Linton) 선교사는 북한의 우물 파기 사업에 중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는 ‘웰스프링’(WellSpring) 사업을 하고 있으며, 넷째 앤드루 린튼(Andrew Linton)과 부인 하이디(Heidi)는 1995년부터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이라는 NGO를 통해 식량조달, 품종개량, 식수공급, 의료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섰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보편적이다. 따라서 현 북한체제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길이 없다. 즉,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인들의 조건 없는 베품과 선행을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선교 방식이다.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마운틴에 근거지를 둔 비영리구호단체 CFK의 경우,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았는데도 대가 없는 헌신에 감동한 북한 당국에서 직접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한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의료 분야에서 2007년부터 평양의학대학에서 뇌성마비 등 장애 아동을 치료해 온 재미교포 윤상혁(Stephen Yoon)은 기독교계 국제 봉사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 소속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을 돕는 국제 NGO ‘선양하나’의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다. 그가 2012년 10월 선천성 뇌성마비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던 10세 소녀를 치료해준 일이 북한 관영매체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장애아동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부족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던 그는 북한당국과의 협의로 2013년 4월 척추재활센터(PYSRC)

건축을 시작하여, 대북제재의 난관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시설을 준공하였다. 미국인 여행금지조치로 평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가 미 국무부에 보낸 호소문 일부 내용이 2017년 9월 「타임(TIME)」지에 게재되기도 했다.¹³⁾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 교육성과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곽선희 소망교회 원로목사), 그리고 한국과 미국 기독교계의 지원¹⁴⁾으로 2010년 10월 정식 개교한 북한 유일의 사립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이 대표적이다. 초대 공동 운영총장을 지낸 김진경 박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1998년 북한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오인받고 체포된 적도 있지만, 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평양과기대 설립을 주도했다. 외국인 초빙교수들과 가족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주일예배가 허용되고, 북한 청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외무문화와 접하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사역자들을 돕는 NGO ‘레아 인터내셔널’(Reah International)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 제이미 김(Jamie Kim) 목사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2002년 방북 후 좀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2005년 이 단체를 설립했다. ‘레아’는 아랍어로 ‘친구’라는 뜻이며,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서울, 시애틀 등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바나바스 무역(Barnabas Trading Ltd.), CFK 등의 단체로 수백 명의 단기 또는 장기 사역자들을 모집하여 파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부터 장기간 사역해온 기독교 NGO의 경우 북한주민

13) Elizabeth Dias, “About 200 Americans have been living in North Korea,” *Time* (2017.9.4.), 41.

14) 통일부 통일협력기금 10억원과 기독교계 모금 440억을 비롯, 재미교포 복음주의 계열에서 많이 투자했다.

들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복음전파의 귀중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직접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겸손한 종의 자세로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중요성이다. 대북 NGO들과 남북나눔운동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적 지원은 신학적 차이를 뛰어넘어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활동하는 우회적 통일선교운동이 될 수 있다. 해외 한인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외국인과 재외한인들의 대북지원 사역은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 통일사역자들의 연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연합 기억 소환의 함의

상이한 대북관과 통일관을 가진 보수와 진보가 북한을 돕기 위해 연합했던 선한 역사는 한국교회가 화해적 기억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3만여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일깨우는 한편, 상호 이해를 통해 화해의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기억, 그리고 대북관(對北觀)으로 인한 교회 분열의 기억은 양쪽 다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¹⁵⁾ 오늘날 교회 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신학적 차이보다는 주로 대북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한을 포용하는 문제가 화해와 평화, 통일뿐 아니라 교회 연합과 일치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15) 전순영,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승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215.

한국교회의 기억의 문제를 성찰하고, 연합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교회는 이념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독교 신앙의 우위성을 확립하고, 공산주의와의 사상적 화해와 재기억화를 통한 교회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한반도 화해와 통일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IV. 사상적 화해와 재기억화의 신학

1. 사상적 화해의 모색

공산주의가 제기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을 깊이 있게 모색했던 서구 신학계의 흐름과는 달리, 한국에서 유사한 시도를 했던 학자들은 분단구조 속에서 큰 제약을 받아야 했다. 역사적으로 해방 전후 기독교 사회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활동과 사회적 기여는 대부분 무시되거나 축소되거나 사장되었다.

변화는 탈냉전의 기운과 더불어 찾아왔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국가 통치이념에만 머물던 통일담론이 민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민족주의 통일론을 주창한 박순경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대척점이 아니며 인류 공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과의 대화를 제안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¹⁶⁾ 남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민중신학자들은 북한은 자유, 남한은 평등을 추구하여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 마르크스주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과의 대화를 시도하여 공통의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했다.¹⁷⁾ 문익환 목

16) 국내 첫 여성 조직신학 박사로서 이화여대를 정년퇴임하고 목원대 초빙교수로 있던 박순경은 통일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1991년 구속 수감되었다. 그는 1991년 7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2차 기독교 동경대회에서 ‘기독교와 민족통일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반공기독교가 반통일세력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교계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순경·서광선·이미애, “국내 첫 여성 조직신학박사 박순경의 신학과 인생,” 『신학과 교회』 6 (2016), 23.

사는 “민주화가 곧 통일”이라고 하면서, 1989년 정부 허가 없이 무단방북하여 김일성 주석을 두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대중의 반공 정서와 교류하기에는 때 이른 것이어서 진보진영에서조차 비판이 나왔으며 그 파급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구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대내적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 운동이 성과를 거두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달라졌다. 한국사회는 급격한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를 맞아 다양성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용인하고 이념적 경직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되면서, ‘민주화=통일’을 주장해온 진보적 통일운동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하고 시민운동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계와 복음주의권에서도 진보진영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주체인 기독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 화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1991년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맑스주의와 오늘의 기독교 사상’ 토의에 참여한 이삼열은 한국교회가 서구의 종교사회주의, 남미와 제3세계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계급과 소유, 혁명과 국가, 정의와 평등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¹⁸⁾ 홍성현은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북한 동포들은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⁹⁾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이 북한사회에 현존해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국교회가 북한

17) 한국의 토착신학으로 분류되는 민중신학은 민중이 역사의 중심됨을 성서적으로 밝히려 고 했으며, 1960~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인권운동·평화통일 운동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8) 이 토론회에는 한신대(고재식, 김경재, 김창락), 연세대(김균진, 노정선), 숭실대(김기순, 김영한, 이삼열) 교수들을 비롯하여 박순경 목원대 교수, 박종천 감신대 교수,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가 참여했다.

19) 홍성현,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사상적 화해,” 『기독교사상』 718 (2018), 12.

의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민에게 우선적 관심을 둘 것을 요청한다. 남한의 기독교가 북에서 환영받는 종교가 되려면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깊이 관심하면서 일상의 삶을 돕는 일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신학자 김회권 역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대화 가능성을 논하면서,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계급모순의 철폐를 위해 한국교회가 남한 내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에 전력투구하여 “주체의 나라 북한 사회를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한 삶의 질로써 설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설파했다.²⁰⁾ 수령론 중심의 주체사상은 남한 사회가 성취할 성숙한 민주주의의 빛 가운데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대화를 시도한 체코의 개혁신학자 얀 밀리치 로호만의 연구를 긍정적 모델로 제시하는데, 이는 로호만이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가 공동의 유산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배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점, 은총의 초월성이 인간 생의 궁극적 차원이라는 지점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결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한도 가난한 자, 눌린 자, 육체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북한 주민들이 살고 싶어할 만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김회권의 주장은 남과 북 양측의 회개와 치유와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입장에서 용서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통전적 평화통일신학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었다. 민족주의나 민중계급주의를 뛰어넘어, 세계시민운동으로서 신학적 원리와 역량을 갖춘 한국교회가 화해의 주체로 나

20) 김회권,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대화의 역사와 전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과주: 한울아카데미, 2012), 59.

서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도와 신학자들의 주장은 한국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화되는 이념갈등 속에서 그 입지가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남 개신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반공주의가 현재 대부분 60대 이상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수되면서 주류를 이루는 집단기억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진보=친북=빨갱이’의 등식이 형성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반정부집회에서 소위 ‘애국 기독교인’ 현상이 나타났다.²¹⁾ 2020년 코로나19 방역위기 속에서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광복절집회는 집단감염의 온상지로 지목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2. 집단기억의 재기억화

한국교회 주류의 집단기억은 신앙과 애국심의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있고 체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해보인다. 그러나 기억의 가소성(可塑性, plasticity) 또는 조형성에 대한 문화학, 사회학, 역사학, 뇌과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기억이나 집단기억은 재구성되고 재편집될 수 있다.²²⁾ 일례로 민주화 이후 주로 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국

21) 이철, “개신교 보수교단 지도자들의 어제의 정교분리 오늘의 정치참여: 분리에서 참여로의 전환에 대한 이유와 명분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37 (2018), 150. 보수교회의 정치집회 참여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 1월 11일과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기총 주최 ‘평화기도회’를 효시로 보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이른바 ‘태극기를 흔드는 기독교인’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22) Maurice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trans. F. Ditter & Ditter, New York: Harper Colophon, 1980[1925]; Hannah Monyer & Martin Gessmann, Monyer, *Das geniale Gedächtnis: wie das Gehirn aus der Vergangenheit unsere Zukunft macht*, Albrecht Knaus Verlag, 2015; Aleida Assmann, *Cultural memory and Western civilization: Functions, media, arch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ierre Nora,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1989): 7-24; Paul Ricoeur, *Memory, history, forget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가의 공식기억에 의해 억압되었던 개인들의 대항기억은 2000년대 이래 구술사 연구자들에 의해 객관적 검증을 거친 사실로 확립되면서 한국사회의 공식기억을 바꾸고 있다.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공산화에 대한 근원적 공포의 뿌리는 전쟁 트라우마 기억에 있다.²³⁾ 과거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진실하고 정의로운 기억이 조형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의 역사를 발굴해내는 데서 화해를 위한 기억이 조형된다. 과거의 악행을 무위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악행의 기억은 현재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목적은 정의와 평화, 화해와 관계회복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타자에 대한 일방적 악마화 대신, 타자 안의 선과 악과 아울러 자신 안의 선과 악을 공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는 자기성찰이 이와 같은 인식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재기억화의 신학적 근거

피해자 관점에서 기억의 문제를 탐구한 신학자로는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대표적이다. 볼프는 그의 저서 『기억의 종말』에서, 기억 자체보다 그 기억이 어떻게 화해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²⁴⁾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악이 궁극적으로 패배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확신에 기초하여, 악행의 기억을 인생사의 일부로 통합하여 받아들일 것, 과거 악행이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압도하지 못하게 할 것,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를 통해 치유를 완성할 것을 제안했다.

Press, 2004;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Michigan: Wm.B. Eerdmans, 2006.

23) 전순영·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기독교사회윤리』 48 (2020), 270.

24)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서울: IVP, 2016).

한국교회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마 5:9)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이다. 북한을 비롯하여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절대악과 동일시될 수 없다. 북한은 악마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화해를 위한 선행조건은 용서이다. 용서 없는 화해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의의 요구를 무시할 위험성이 있다. 용서는 자기 안의 악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악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북한 입장에서조차 남한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많을 수 있는데, 친일잔재 미청산이나 북측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적은 전적으로 부인되기 어렵다. 전쟁기 남한에서는 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보다 우익과 군경에 의한 학살 규모가 더 컸고,²⁵⁾ 미공군이 민간인 지역까지 포함한 무차별 공습을 실시하여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분단과 전쟁과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를 기억하는 이유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트라우마 기억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의 원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볼프가 제안하는 ‘진실하고 정의롭게 기억하기,’ ‘타자를 해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억하기,’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 기억하기’라는 실천과제는 한국교회 집단기억의 재기억화에 유용한 지침이 되어줄 수 있다. 북한이라는 타자에 대한 이분법적 악마화는 ‘평화’(마 5:9; 롬 14:19; 엡 2:14; 골 1:20; 히 12:14; 약 3:18)의 소명을 받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기억방식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V. 나가는 말

기억의 목적은 화해와 평화이다. 이 평화는 남과 북뿐 아니라, 적대적

25)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파주: 사계절, 2013), 26-27.

대립과 갈등이 있는 모든 곳에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이념갈등으로 갈라진 작금의 교회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 연합의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북한을 돕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은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기념문화를 만들어내고 교인들의 재기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기억은 기념문화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창조의 기념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기념문화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주간의 주제 설교, 공과 교재, 탈북민돕기바자회, 사진전, 영상 관람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통일’이라는 순수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신학교 강단에서부터 목회현장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교회 내 성인 및 다음세대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통일학교, 북한선교학교, 통일선교학교, 통일선교아카데미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는 한국교회 통일교육은 효과적인 재기억화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한국교회는 대북지원과 탈북민 사역, 통일교육 등에서 이념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많은 통일선교 사역자들이 사역현장에서 이른바 ‘색깔론’과 이념갈등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 통일한국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평화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헌신해온 사역자들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세대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한국교회는 최선의 배려와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탈북민, 남북교류, 북핵 폐기 등 각종 현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에 가장 비판적인 비기독교인들과 청년층까지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체계(자유, 평화, 인권, 타자 포용 등)를 구현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주요한 시민단체로서, 민간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조형하는 화해의 기억이 한반도 화해와 통일로 이어진다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 타자 포용이라는 기독교적 가치의 중요성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고, 북한돕기운동에서 이루어졌던 연합의 기억을 소환하고 공유함으로써 대북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의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다. 교회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부여받았다. 분단이 장기화되고 통일의식이 현저히 약화되어 갈 때에도 교회는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행동을 멈출 수 없다. 내부에서 먼저 회개와 용서, 화해 운동이 일어나고 연합과 일치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평화의 일꾼이 될 것이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근접하도록 하는 역사적 소명이 한국교회에 부여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파주: 사계절, 2013.
- 김회권·고재길·설충수·신범식·이규영·고재성·이기홍·임성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2.
- 박순경·서광선. 이미애. “국내 첫 여성 조직신학박사 박순경의 신학과 인생.” 『신학과 교회』 6 (2016), 9-43.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이철. “개신교 보수교단 지도자들의 어제의 정교분리 오늘의 정치참여: 분리에서 참여로의 전환에 대한 이유와 명분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37 (2018), 143-176.
- 임완철. “199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문화적 기원 연구—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전우택·박명규·김회권·이해완·심혜영·박종운·조정현·김경숙.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2018.
- 전순영.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전순영·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기독교사회윤리』 48 (2020), 257-282.
- 홍성현.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사상적 화해.” 『기독교사상』 718 (2018), 11-21.
- Barth, Karl. 이신건·오성현·이길용 역. 『칼 바르트의 신학묵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Niebuhr, Reinhold. “Christian Politics and Communist Religion.” *Christianity and Social Revolution*. ed. Lewis, John, Polanyi, Karl and Kitchin, D. K. London: Victor Gollancz, 1935.
- Volf, Miroslav. *The End of Memory*.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 서울: IVP, 1996.
-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2021.7.21.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1980년대~200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2000.

WCC, *World Conference on Church and Society, Official Report*, Geneva: Imprimeriela Concordance, 1968.

『국민일보』. “지령 1만호 특집: MZ세대 여론조사 ‘가장 싫은 나라 중국, 북한은 남.’” 2021.6.25.

『남북경협뉴스』. “[인터뷰] 남북나눔운동 이문식 공동대표, ‘화해에서 평화로.’” 2019.9.30.

Dias, Elizabeth, “About 200 Americans have been living in North Korea.” *Time*, 2017.9.4.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01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05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북한과 공산주의, 그리고 보수와 진보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적대의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한국교회 집단기억의 재기억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대응과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극단적 반공주의의 문제를 성찰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진보진영의 통일운동과 보수진영의 복음통일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양 진영은 1990년대 북한돕기운동으로 연합의 물꼬를 텃고, 외국인과 재외한인의 대북지원활동이 연합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고, 북한돕기운동에서 이루어졌던 연합의 기억을 소환하고 공유함으로써 대북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재기억화는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재기억화, 기독교 반공주의, 북한돕기운동, 연합과 일치, 이념갈등, 한반도 평화통일
